

첫 메타버스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 정보부터 채용 기회까지?



▶메타버스 채용박람회



▶메타버스 채용박람회 포스터

우리 대학은 지난 27일 V Story 메타버스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조물'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다. 이번 '2021년 동서대학교 메타버스 채용박람회'에는 ▲네오윌정보기술 ▲네오스핀정보통신 ▲주식회사 에코마인 ▲아이디노 ▲씨엔젤 ▲씨제이엘유 ▲네오화엔텍 ▲호엘AG405 ▲드림아이티 ▲신라호텔(제주) ▲신화월드 ▲관세법인 세인 ▲대우제약주식회사 ▲CJ나인브릿지(제주) ▲씨서원유통 ▲부산신항만㈜ ▲씨마르신 ▲에어부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에너텍유나이티드 ▲에스구조엔지니어링 ▲아

난티(남해) ▲파크와이즈 부산 총 2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50여 명 이상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실제로 방문할 필요 없이 아바타로 기업의 로고로 꾸며진 방을 방문해서 ▲제출서류 ▲지원 가능 전공 ▲업무 내용 ▲자격 조건 ▲모집 직종 ▲입금 ▲근로자 수 ▲업종 등의 채용 정보를 보고 실제와 닮은 채용박람회를 마음껏 누렸다. 개발, 디자인, 무역, 물류, 마케팅, 회계/세무, 건축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사전예약과 당일 현장 접수로 학생들은 희망 업무 및 기업의 담당자와 채용박람회 면접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취업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메타버스 아바타가 제시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단순 채용박람회 성격에 그치지 않고, MZ 세대와 부·울·경 감소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취업경로를 다변화시킬

준비 중이며, 메타버스가 '잡 미스매치'를 잡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메타버스를 진행한 이현아 담당자는 "코로나 시국에 채용박람회를 연다는 것은 불가능이라 생각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체화 뿌듯하고 신기하다"라고 전하며 "메타버스의 매력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학생들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행사 진행이 원활했다"라며 처음 개최된 우리 대학의 메타버스 채용박람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본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메타버스를 실제로 체험해본 것은 처음이다. 아바타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니 게임 같기도 하고 신기했다. 컴퓨터로 접속하면 되는 점이 정말 편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 고용지원과 공동주관으로 운영되며, 우리 대학 LINC+사업단,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단,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 K-Move

스쿨 등 채용연계 사업단들과의 협동 프로젝트로 우리 대학만의 산학연계 우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송강영 학생취업지원처장(대학일자리센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의 대규모 집합 채용 박람회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MZ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메타버스 채용박람회가 최근의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Q College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캠퍼스에 뛰어들어 각종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LINC+사업단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메타버스와 ZOOM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언택트 기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U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은 기자 ymacom@gmail.com

우리의 교육은 다르다!

현업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교수진



▶디자인대학의 권영걸 석좌교수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임권택 석좌교수

본업에서 거장의 반열에 오르고 강단에 선 우리 대학 디자인대학 권영걸 석좌교수와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의 임권택 석좌교수가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임명과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 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권영걸 석좌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교수와 학장,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뛰어난 교수다. 그리고 2007년부터 3년간 서울시 부시장 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역임해 서울시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행정을 총괄했다. 이후 ㈜한샘의 사장 겸 최고디자인경영자로 재직하는 등 관·산·학을 두루 섭렵한 디자인계에서는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또한 40년이 넘는 디자인 저서를 출간하며 자신의 디자인 지식을 전수하고 디자인에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막 주간에 규슈산업대학과 우리 대학의 국제공동수업에서 한·일 대학생을 대상의 원격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2008년 과격적으로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을 신설하며 차별화된 교육 방식으로 최정에 영화예술인을 '영화도시 부산'에서 육성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임권택 영화감독을 필두로 우수한 교수진들을 배치했으며 학생들이 충무로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연기자, 영화제작자 지망생이 굳이 부산을 떠날 필요 없이 부산에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모두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권택 감독은 개교 15주년 기념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통해 우리 대학과 인연을 맺어 현재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권택 감독은 60여 년간 쉬지 않고 영화를 만든 거장이며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한국의 거장 감독이다. 임권택 석좌교수는 지난 6월부터 15일까지 열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았다. 2002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 2005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명예황금곰상' 수상에 이어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으며 영화계에 확고히 이름을 새겼다. 한국 영화를 넘어 아시아 영화의 발전을 함께해 온 영화감독이 우리 대학의 석좌교수로 임명됨에 따라 우리 대학의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학생들은 보다 깊고 상세히 현장을 배우고, 예술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준처-씨네간 김경은 기자 ymacom@gmail.com

'에버그린 프로젝트' 성공적인 첫 출발!

영화대학 출신 배우부터 6차 산업교육까지



▶에버그린 영화대학 1기 김준태(왼), 이혜순(오) 씨

우리 대학은 부산인재공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2021 지역사회상상·협력지원 사업'에 선정돼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공동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15일 체결했다.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고령자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변화시켜 건강과 빈곤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의 인프라와 휴먼케어 ICT 기업의 기술력을 융합해 시니어 케어 분야의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자 대표 프로그램은 에버그린 영화대학으로, 가장군 거주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연기·노래·춤 등을 교육하고 배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배우 양성 학교다. 에버그린 영화대학 1기 김준태, 이혜순 씨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MBC 경남이 주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나부터 챌린지' 오디션에 합격해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첫 성과를 알렸다. 촬영한 광고 영상은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에 앞서 '방역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학교 구성원 각자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다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광고에서 김준태 씨는 학교 방역의 전선에 선 비장함을 담은 교장 선생님 역할을 했고, 이혜순 씨는 TV 뉴스를 시청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시민 역할을 맡았다. 첫 상업 광고에 출연하게 된 김준태 씨는 "인생 후반전을 영상에 담아 세상과 나



▶6차 산업과 연계한 마을미디어교육 업무협약

누고 싶어 도전하게 됐다. 기회를 준 에버그린 영화대학에 감사한다"라며 소감을 밝혔고 이혜순 씨는 "앞으로도 영화배우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김준태·이혜순 씨는 에버그린 에이전시 공동 운영하는 (주) A.LAB의 제안으로 '나부터 챌린지' 비대면 오디션에 도전했다. 에버그린 영화대학의 모범 학생인 두 사람은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광고 제작사에 표정 연기 등 영상 자료를 제출했고 제작사 프로듀서들의 심사를 거쳐 남녀 배우로 각각 선발됐다.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6차 산업과 연계한 마을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도 첫걸음을 뗀다. 지난 9월 14일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을 위

한 업무협약을 맺은 에버그린 마을미디어 교육은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운영된다. 우리 대학 LINC+사업단과 가장군 농업기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래화해영농협동조합이 공동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화해영농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비대면 마케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게 된다. '6차 산업과 연계한 마을미디어교육'은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가장 화제 홍보는 물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은 기자 ymacom@gmail.com

부산 공기업에 MZ 감성을 입히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병무청과 업무협력



▶부산경제진흥원 업무협약식



▶부산병무청 업무협약식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병무청이 우리 대학 상호 간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로부터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공유 기업-대학 협력 기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은 영화·디자인·IT 융합 등의 부문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써, 이번 우리 대학의 LINC+사업단과 디자인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산 공유 기업의 CI/BI 등의 시각적 부문의 디자인 브랜드 콘셉트의 신규 개발과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협력 프로그램은 디자인대학의 2학년 필수과목인 '기초무트'에서 진행되며, 담당 교수의 가이드로 27명의 수강생이 공유 기업 2개사의 브랜드 디자인 의뢰 과제를 약 8주간 수행한다. 공유 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집캐리와 ㈜하나뿐인그회사다. 여행길 당일배송 및 서비스로 유명한 ㈜집캐리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개선 또는 신규 브랜딩을 요청했다. 또 올해 신규 공유 기업으로 지정된 식품제조 공유 주방을 운영 중인 ㈜하

나뿐인그회사는 지역 공유 주방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을 요청했다. 부산병무청은 대학생들의 원활한 병역 이행 지원 및 병무 행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병무청과 우리 대학은 ▲동서대 학생 대상 병무 행정서비스 지원 ▲병무 행정 홍보 활성화 위한 협력 ▲동서대 IPS(In-school Field Study) 지원 ▲양 기관 보유 장비 및 시설 활용 등에 공동의 뜻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에 특화된 우리 대학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병무행정에 접목시켜 최신 트렌드에 걸맞고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병무 행정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병무 행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높은 취업률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생명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김경은 기자 ymacom@gmail.com

코로나 시대에 맞춘 NFC 출입 관리

B.SORI 경진대회 대상 수상



▶DSU NFC팀이 수상한 모습

부산권 6개 대학 LINC+사업단이 이번 에 두 번째로 'B.SORI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학 DSU NFC팀이 대상(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B.SORI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부산의 기업과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젝트이다. 6개 대학 내에 다양한 주제들을 공유 및 교류함으로써 성공적인 LINC+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캡스톤 프로그램이므로 2인 이상 팀을 이루어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기존에 과제 수행을 하면서 완성했던 결과물을 활용하여 접목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총 30개 팀이 참가했다. ▲미래산업 핵심기술 ▲지역사회 혁신·공헌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다. 미래산업 핵심기술 분야는 지역 기업, 지역 외 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을 통한 주제, 지역사회 혁신/공헌 분야는 정부, 공공기관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시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주제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와 그에 맞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아이디어 발산 및 구체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Design Thinking 기

반 문제 해결 교육 등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을 8시간 듣고 난 후 전문 컨설턴트 아이디어 구현화를 위한 사전 멘토링,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한다. 산출물(발표 자료, 판넬, UCC) 작성법 교육을 받고 아이디어 구체화 결과 중간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심층 있는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경진대회에서 최종 발표를 한다. 예선에서 6개교 총 30개 팀 예선을 진행하고 총 12개 팀이 본선 진출한다. 본선 진출팀을 제외한 18개 팀은 장려상을 수상하고 상위 12개 팀 중 본선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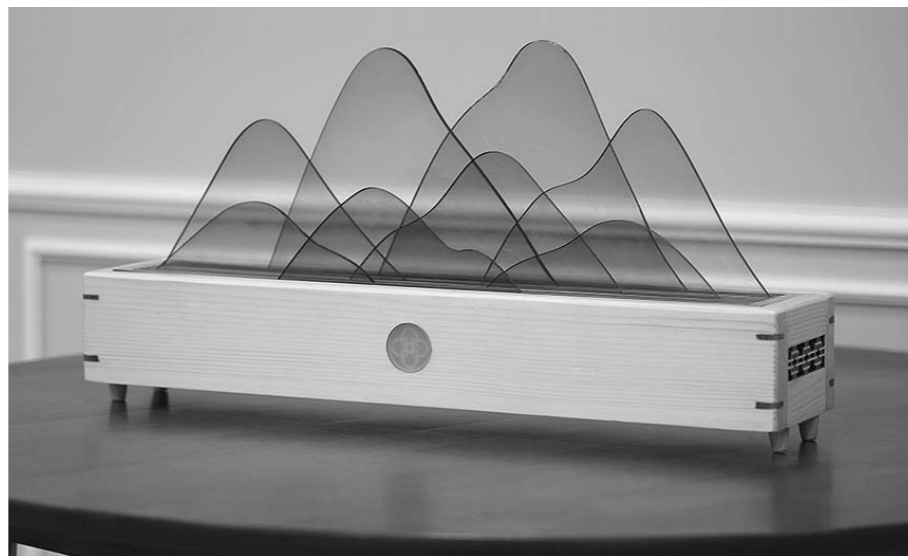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총 5개 팀, 15명이 참가했는데 그중 DSU NFC팀이 'NFC를 활용한 실시간 출입 관리 서비스'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분야에 지원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엠비선팀은 'AI 기반 패시브 스마트 미러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대수 LINC+사업단장은 "참가 학생들이 이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진다. 동시에 부산의 기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이런 산학협력 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심층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한국전통을 담은 「숨」

잇테리어 메이커스 경진대회 대상 수상



▶DIM3팀의 제품 '숨'

공학교육혁신 센터에서 동남권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잇테리어 메이커스 경진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됐고 우리 대학 학생이 대상 수상을 포함하여 총 5개 팀이 상을 수상했다.

잇테리어란 IT와 interior의 합성어로 디자인과 가능성이 뛰어난 IT 디바이스 제품을 일컫는다. 이번에 잇테리어 메이커스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DIM3 팀에게 수상소감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직도 신기합니다. 저희 작품은 기능보다는 디자인에 더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팀에 비해 평범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원했던 목표까지 도달했고, 구현하고자 하는 동작이 됐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과 발표날, 대상에 저희 팀 이름이 올라왔을 때, 10초간은 핸드폰을 할애했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상도 대상이지만 무엇보다 팀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대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출품작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DIM3 팀에서 제작한 작품은 「숨」이라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숨」은 공기에 대한 순우리말이며, 한국의 전통 디

자인을 결합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직접 염색한 아크릴 산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사계절을 표현했으며 아크릴 산 아래에서는 네오 픽셀(LED)이 배치되어 야간에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제품의 '바디'는 목재로 제작했습니다. 목재는 가공이 쉬운 스프러스 목재를 사용했으며 전면과 옆면은 전통 무늬를 삽입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동서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검색하시면 저희 팀(DIM3)의 「숨」 소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이번 출품작을 어떻게 고안하게 됐고 진행하면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A. 이번 작품에서는 색다르게 목재를 사용해 제작해 보고 싶었고, 평소에 제가 전공적인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 이 둘을 결합해 보면 어떨까 하여 제작하게 됐습니다. 작품 제작에 있어 목재를 처음 가공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고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인에도 주 5일 동안 하루 8~10시간 이상은 FABLAB실에 있어야 했던 경험이 조금은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5년 연속 장관상 수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VR 시스템



▶장관상을 수상한 모습

우리 대학이 제56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에서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상을 포함해 총 3팀이 선정되는 등 모두 4팀이 수상했다. 또한 이번에 5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1966년부터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서 디자인 콘텐츠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 없이 디자인 자체로만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한 플랫폼에서 심사하는 대한민국 정부공인 국내 최대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번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참여 심사를 최초 도입했다. 이번 장관상까지 5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한다. 우리 대학 LINC+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운영하는 '융합교과목 캡스톤디자인'에 재학 중인 임혜정, 손영민, 최수정, 이유림, 김성민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VR Dental Treatment System' 팀의 인터뷰이다.

Q.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찾고,

이를 해결한 것이 수상 비결인 것 같습니다.

Q. 디자인전람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A. 팀원 모두가 3, 4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Q. 이번 출제작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VR Dental Treatment System'인데 어떻게 이 작품을 고안하게 됐나요?

A.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비해 치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더욱 치과를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통역사가 있는 치과가 매우 적고, 치과 진료 시 청각 장애인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눈을 가리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치과 진료에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R을 활용한 치과 진료 의사소통 앱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우리는 빛내왔고 빛낼 것입니다

고리본부 광고 공모전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은 홍순용(왼), 손영민(우) 학생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와 방송선학과 학생들이 '2021 부울경 대학생 대상 고리본부 광고 공모전'에서 신문 인쇄광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 공모전은 ▲중앙에너지기업 이미지(원자력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역경제 기여, 지역사회봉사 등 사회책임기업 이미지 ▲친환경·저탄소 그린경제에 부합하는 기업 이미지 등 세 가지 주제로 신문 광고 부문으로 진행했다.

부산, 울산, 경남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혹은 휴학생을 기준으로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인쇄광고 대상 1팀(200만 원), 최우수상 1팀(100만 원), 우수상 2팀(50만 원), 장려상 3팀(20만 원) 등 총 7팀이 수상을 했다.

작품규격은 가로 360×500(mm)로 해상도 300dpi이상, 10Mb이내의 jpg, pdf파일이어야 한다.

김준석 고리원자력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앙에너지 기업으로서 미래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수원의 이미지가 담긴 참신

한 광고가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작품 '우리는 빛내왔고 빛낼 것입니다'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유류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도입한 고리원자력 본부의 변화와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한민국 지도 위에 도트를 배치하여 고리원자력 본부부 인체 대한민국이 빛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가 눈길을 끌었다. 홍순용 학생은 "방학 동안 친구와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평소 관심 있었던 원자력발전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참가자에게 있다. 또한 수상작은 홈페이지, 운·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배포등의 비영리 및 공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녹색 미래를 그려나가는 KOGAS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최우수상 수상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호(왼), 강하나(오) 학생

우리 대학 디자인 대학의 강동호, 강하나 학생이 '제4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대국민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혹은 3인 이내 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출품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가스공사를 쉽게 재밌게 소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이미지,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포스트, 일러스트 혹은 광고 영상,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다.

세부 주제로는 ▲한국가스공사의 비전 2030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사업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 지원 사업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한국가스공사가 공식 후원하는 WGC2022(World Gas Conference 2022)이다.

전문가 심사(50%), 대국민 심사

(30%), 가스공사 임직원 심사(20%)를 거쳐 총 302건의 출품작 중 우수작 3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입상 5팀이 수상했다. 대상은 영상 부문은 500만 원, 이미지 일반 부문은 200만 원, 청소년 부문은 100만 원을 수상한다.

가정에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한국가스공사, KOGAS의 비전 2030를 모션그래픽으로 표현한 '녹색 미래를 그려나가는 KOGAS'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국가스공사, KOGAS의 비전 2030를 알기 쉽게, 재미있게, 모션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외국인 유학생도 비교과 즐기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승자 인터뷰



▶천티이엔 학생 사진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우리 대학 International College에서 개최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비교과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International College(IC)은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시설로 교육과정 이외에 운영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및 학생교류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영어가 우수한 한국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천티이엔 학생의 수상소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비즈니스 연계 국어 말하기 대회에 대해 소감을 몇 마디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와 같은 유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교

수님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 덕분에 규모가 있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을 때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순간이 믿기지 않으며 잊지 못합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저의 자기개발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타 국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친구들의 코로나 시대의 기쁨과 슬픈 경험들을 들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미국 미디어 그룹인 'Hearst Group' 에 합격!

디자인대학 김유라 졸업생 수기



▶디자인대학 김유라 졸업생

디자인대학의 김유라 졸업생은 미국의 다국적 매스미디어 그룹인 'Hearst Group'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김유라 졸업생이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와 취업이 아기를 들여보고자 한다.

제 학교생활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일부러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입학 때부터 졸업 후에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것을 희망해 왔었기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을 알아보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약 6개월의 교육을 받고 K-MOVE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뉴욕에 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대해 조인을 구하거나 의지를 할 선택이 없어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 미리 겁먹어서 시작하지 않거나 회피하지 않는 성격이라 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하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향수병이 빨리 와서 심리적으로 공허하고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 미국에서의 인턴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미국에서의 나의 꿈과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턴생활 중에도 직장 생활을 마치듯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1년으로 예정되었던 인턴 생활

을 3개월로 빠르게 종료하고 원하는 뷰티 회사에 합격해 정식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브랜딩 한 제품들이 Walmart, CVS, Watsons 등 다양한 미국 대형 리테일 스토어에 발매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풀타임 잡 외에도 프리랜서 잠을 통해 다른 미국 회사의 일을 해주며 미국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며 디자인을 설득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회사 밖에서 스스로 쌓았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로 회사를 벗어나 개인 스스로 리브랜딩 한 브랜드가 Target 등 미국 대형 리테일 스토어에 발매되는 등 개인으로서 굉장한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미국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개인적으로 만든

작은 네일 브랜드를 제작했습니다. 회사를 벗어나 저의 개인 취향과 심대의 취향을 담은 디자인으로 처음 작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작업물은 이번에 이직하게 된 매거진 회사의 편집장이 가장 관심 있게 봤고, 미국 10대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선호했었던 회사의 조건과 잘 맞아 합격하는데 더 확신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과 성과로 인해 미국의 다국적 매스미디어 그룹인 'Hearst Group'에 합격했습니다. 'Hearst Group'은 188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역사적인 다국적 매스미디어 기업으로 미국의 주요 대형 방송국, 잡지, 채널, 디지털마케팅 사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제휴하여 유명 그룹들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허스트 매거진은 ELLE, BAZAAR, Esquire, Seventeen, Men's health, Cosmopolitan 등 다수 유명 매거진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행동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이라고 해도 우연히 땅에 떨어져 있는 운도 움직이는 사람들에겐만 주어지는 것이고, 만약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연히 만난 운을 반드시 자신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늘 고민하고 성취하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배분들도 늘 comfortable zone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정확한 목표와 방향 속에서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대학생활 보내길 바랍니다.

글로벌 늘 글로벌하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해외에 있는 기회에 도전하는 것을 적극 권고해 주신 류도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또한 꿈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 많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곳에서 '동서대학교' 이름으로 멋진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교육해 주신 우리 대학과 장재국 총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혜미 수습기자

■ 그날 직업인 인터뷰 - 문재우(국제통상학과·3)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Fluo'

Q.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식품 기업 '아이펫'을 운영 중인 국제통상학과 3학년 문재우라고 합니다.

Q.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A. 1인 창업으로 시작하여 'New life with pet'이라는 슬로건처럼 '새로운 삶을 반려동물과 함께'라는 의미로 반려견들의 건강을 위한 브랜드 'Fluo'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츄르는 고양이 제품을 떠올리지만, 색다르게 반려견을 위한 츄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Fluo'는 '형광'이란 의미가 있는데, 형형색색의 농수산물을 활용해 영양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맛을 구현하고 반려동물의 기호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Q. 창업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배운 여러 경험을 통해 취업보다 창업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동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Q. 일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나요?

A. 제가 이 일에 목표도 뚜렷하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급진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학업에 최대한 집중하다 보니 등록금을 먼저받게 되었습니다.

대외활동이나 교내에서 주최한 많은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정부 지원사업인 '생애 최초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했습니다. 학업과 일을 둘 다 해결하려다 보니 벅하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뿌듯했던 것 같아요!

Q. 관련된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요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 좀 더 섬세

하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케팅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식품을 다루다 보니 지식이 없는 모르는 분야를 새로 배우기 위해서 반려동물 식품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Q. 요즘 이 분야에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슈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책임감과 양육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면 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요!

Q. 앞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A. 현재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공급체가 부족하다 보니, 이미존이나 소피 등으로 제가 출시한 제품이 수출되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힘든 순간들을 많이 찾아왔는데, 앞으로 생산될 좋은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꼭 무슨 일이든 도전해보길 추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직접 경험하는 도전적인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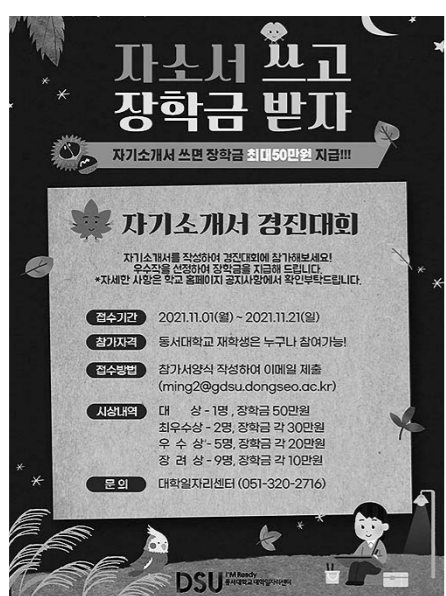
아무래도 직접 겪어야 외닿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 중 하나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메모하기입니다. 사소한 것도 메모하다 보면 생각 정리도 쉬워져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움직여보면 어떤 계획도 다 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더라도 취업을 도파처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예빈 수습기자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나를 세상에 알려보자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면접 이미지

이유도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 가치관 등과 연관지어 설명하면 된다. 또한 지원한 직무에 대한 필요 역량 지식 등도 확실하게 자신이 어떤식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작성하면 좋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지원동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 입사 후 포부 작성 TIP

우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직무적 관점에서의 목표와 해당 직무가 담당하는 업무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어떻게 임하겠다는 자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회사의 목표와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사 할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구하는 기업철학이나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 항목과 입사 후 포부를 헛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지원동기는 입사 전 자신의 생각을 적어야 하며, 입사 후 포부는 본인이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과 포부를 밝히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 성격 장단점 작성 TIP

요즘은 성격에 대한 장단점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단점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 또는 장점과 역할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등으로 장단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그러므로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직무 또는 인재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점을 쓰는 것은 글자 수가 낭비 될 수 있으므로, 나의 장점이 이 직무에서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또는 조직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은 특별하고 멋진 장점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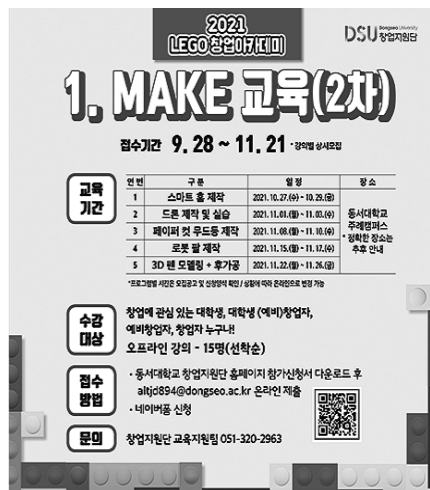
김예빈 수습기자

우리 대학 예비창업자들 주목!

2021 LEGO 창업아카데미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 로고



▶LEGO 창업아카데미 2차 MAKE 교육 모집 공고문

지난 9월 13일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 창업 지원 단에서 실천 창업 프로젝트인 '2021 LEGO 창업아카데미' 시리즈 특강을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의 수강대상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LEGO 창업아카데미' 시리즈 특강을 수강하면서 그들이 창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창업 기초 소양 ▲창업법률 ▲홍보와 마케팅 ▲지식 재산권 등과 같은 창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교육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학생들이 창의적 도전정신을 갖추고 실무형 실전 교육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뜻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태교육과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를 진행하고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실전형 교육에 힘써 왔다. 또한, 부산지역 내 창업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행되는 'LEGO 창업아카데미'

시리즈 특강은 10월 20일 지식재산권 수업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힘입어 창업지원단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LEGO 창업아카데미 2차 MAKE 교육'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1 LEGO 창업아카데미' 시리즈 특강 교육과 다르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으로, 우리 대학 주래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대학생, 예비 창업자, 일반인, 대학생 창업자 등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 홈 제작 ▲드론 제작 및 실습 ▲페이퍼 컷 후드드 제작 ▲로봇 팔 제작 ▲3D 펜 모델링과 같은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춘 5가지 수업을 진행한다.

'LEGO 창업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창업이란 것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제작 수업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사회의 창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로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창업지원단 교육팀 이메일로 보내거나 네이버 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재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천 개의 파랑

나만의 속도에 맞춰 달리는 것



• 책 제목 : 천 개의 파랑
• 책 저자 : 천선란
• 출판사 : 허블

오늘날 로봇은 과거 영화에 나오던 상상 속의 로봇과 흡사하다. 대형 공장의 기계 팔에 머무르던 로봇이 크게 발전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무인화가 활성화되며 사람을 대신할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제는 각테일 제조나 카페 음료 제조와 같은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며, 서빙까지 도맡아서 하는 등 사람의 여러 업무를 도우며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로 부상했다.

2005년,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휴머노이드 콜리의 이야기다. 2035년에는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인간이 하던 단순 반복 작업들을 도맡아 하게 된다. 덕분에 인류는 단지 머리를 콜리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세상이다. 콜리의 첫 번째 삶은 기수 휴머노이드 C-27. 하지만 콜리는 다른 휴머노이드와 다른 점이 있었다. 만들어지는 마지막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했다는 것인데, 그 칩은 인지와 학습 능력을 넣어주었던 칩

으로, 개발 중인 학습 휴머노이드를 위한 칩이지 기수 휴머노이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콜리는 인간의 실수로 탄생한 셈이다.

기수 휴머노이드마다 말이 배정되고, 콜리는 '투데이'라는 흑마와 파트너가 됐다. 콜리는 기수가 말에 탑승하기 전 말의 목덜미를 쓰다듬는 코치를 보며 행동을 따라 했다. 그 외에도 고삐를 당기고, 등자로 말허리를 치는 등 말과 기수 사이의 약속을 따라 했다. 또 투데이의 등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통해 기쁨을 학습했다. 어느 순간부터 시험 전후로 코치 대신 콜리가 투데이의 목덜미를 쓸었고, 둘의 성적은 날로 좋아져 투데이의 몸값이 크게 뛰어올랐다.

하지만 투데이의 몸값이 5000만 원에서 억이라는 단위로 넘어가자 콜리의 손에는 체적이 쥐어졌다. 이후로 둘은 제대로 된 교감도 못한 채 조급 앞은 눈으로 주위를 달렸다. 콜리는 더 이상 투데이의 등받이에서 기쁨을 못 느꼈다. 그래서 투데이가 이대로 달리다가는 죽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날, 스스로 낙마했다. 투데이를 실격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뒤따라 달려오는 말들의 발굽에 밟혀 끝판과 하반신이 전부 부서졌다. 투데이는 살았다. 하지만 콜리는 존재 가치를 잃었다. 이것이 콜리의 삶 제1막이다.

아마 콜리의 몸은 조각조각 나뉘어 다른 기계의 부품으로 쓰이거나 경마박물관에 박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콜리의 시야에 한 소녀가 들어왔다. 그게 콜리의 마지막 기억이다. 그리고 다음 날 전원이 꺼졌다. 콜리는 전원이 꺼지기 전, 코치가 자신에게 '살아'라고 표현한 것을 잊지 않도록 메모리에 저장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콜리의 앞에는 그

소녀가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우원제. 소녀는 브로콜리를 줄여서 콜리라며 이름을 지어줬다. 콜리는 이렇게 콜리가 됐다. 콜리를 데리고 간 원제는 어릴 때부터 로봇에 관해 전문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유학파 학생들 사이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원제에게는 두 명의 가족이 있는데, 은혜는 일곱 살이 되던 해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원제의 언니다. 원제의 엄마 보경은 로봇으로 인해 엄마의 일자리를 잃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남편을 잃어 로봇을 싫어하는 평범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후로 콜리와 원제네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은 휴머노이드와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동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 사람 사는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SF 소설과 다르게 깊은 생각을 하며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주인공 콜리에게 인간의 주 기능인 감정이 삽입됐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답답하게 밀려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의 폭풍을 느끼면 된다.

"콜리는 공감을 느낄 수 없는 개체였지만 공감하는 척 움직이게 만들어졌다. 어차피 사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공감이었다. 보경은 콜리를 얹어놓고 몇 번 대화를 한 후야야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들을 줄 수 있는 귀와 고리일 수 있다는 고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으며 등장인물들이 전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공감하며 읽어 보자. 상상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안겨 줄 것이다.

김규리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 영화 제목 :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 영화 감독 : 윤종빈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는 2012년 2월 2일에 개봉한 윤종빈 감독의 작품이다. 이 영화는 혈연으로 뭉쳐졌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는 독특한 전개와 영화다.

영화는 부산세관 비리 공무원 최익현(최민식)이 동료들과의 뒷거래로 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시작된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뒷거래의 피해자가 고발하면서 익현과 그의 동료들은 해고를 당할 처지가 된다. 익현은 장 주임(김중수)과 아간 당직을 서던 중 수상한 2인조를 뒤쫓다 필로폰 10kg을 발견하게 되고 필로폰을 파는 조건으로 옷을 벗겠다 선언한 익현은 장 주임의 소개로 안철동 조폭 최형배(하정우)를 만나 거래를 하게 된다.

어느 날 익현과 형배는 거래를 위해 자리를 갖고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술에 취한 익현은 형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같은 집안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고 익현은 형배에게 집안 어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할까?

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하대를 한다. 그러나 건달인 형배는 익현의 무례를 폭력으로 돌려주고 화가 난 익현은 형배의 아버지에 찾아가 집안 촌수로 형배를 굴복시키고 형배와 익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배를 타게 된다.

그렇게 동업을 시작하게 된 익현과 형배는 익현의 인맥과 수완, 형배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설 카지노와 호텔 운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고 잘나가게 된다. 그러던 중 익현은 어느 사무내에서 알고 지내던 나이트 사장 허삼식(권태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세관 공무원에서 번듯한 건달이 된 익현에게 자신의 나이트에 불러왔던 돈을 뺏아가는 조폭을 처리해달라 부탁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배는 나이트에 있는 조직은 자신과 동시기에 합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며 익현의 부탁을 거절하지만, 익현은 자신이 나이트에 쳐들어 오면 미끼가 되어줄 테니 집안을 들먹이면서 나이트를 접수해 달라 청한다. 그렇게 나이트를 접수하고 있던 김관호(조진웅)를 폭력으로 찍어눌러 나이트를 접수하게 된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형배와 익현의 전성시대는 계속되는 듯했다.

영화의 중반부에 접어들 때 단단하던 익현과 형배 둘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애초에 출신이 다른 둘의 일 처리 방식이 분란을 가져왔다. 김관호의 조직이 형배를 암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배의 조직은 폭력으로 복수를 하려 하지만 익현은 어수선한 시기에 폭력을 쓰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진다 조직원을 몰리고 나에게 일임하라는 말을 전한다. 그러나 형배는 조폭은 조폭만의 법이 있으니 익현에게 몰라나라 하면서 둘의 감정엔 깊은 골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형배는 자객에게 공격을 당

하게 되고 그들의 사이는 과격으로 치닫는다.

부상을 입은 형배는 익현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조용히 떠나라고 지시하고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된 익현은 상대 세력인 김관호를 찾아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익현은 날개를 펼치게 되지만 정부에서 조범서(곽도원) 검사를 필두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의 조폭들을 잡아들이게 된다. 형배와 관호는 경찰에게 잡히면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익현은 범죄와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 검사에게 뇌물이나 향응 등 여러모로 힘을 써보지만 결국 붙잡혀 된다. 조 검사와 익현은 쥐조살에서 맞닥뜨리게 되고 더는 풀려날 곳이 없던 익현은 조 검사에게 형배를 끌어먹는 조건으로 사법 거래를 시도한다. 결국, 조 검사와 익현의 계획대로 형배는 김관호로 잡혀가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 조 검사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출세 가도를 달리고 익현은 사법 거래로 풀려나 살아남게 되면서 배신과 배신이 꼬리를 무는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된다.

이 영화는 결국 사람은 모든 인연을 떠나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등장인물인 최익현 처럼 돈이나 명예 앞에서 인간은 때때로 비겁해진다. 그것이 실력 나의 친구나 지인,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게 현실이다. 또한, 불리할 때마다 이곳저곳에 기생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감정을 느낀 영화로 기억된다.

이민재 수습기자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문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



▶ '오징어 게임' 해외 포스터 ▶ 사진출처 - 넷플릭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 세계가 어릴 적 즐겨 하던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폭 빠져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에는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만들어졌으며, SNS에서 '달고나'를 만드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은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 론칭 순위가 집계되는 83개 국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생성되는 각종 '핍'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한국의 놀이부터 간식까지 유튜브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나온 한국의 모든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리허하는 영상을 제작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세계는 현재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

도르마 오징어 게임과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한국의 놀이에 대해 살펴보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가 2,140만 달러(약 254억 원)를 투자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총 9부작으로 구성된 드라마다. 감독은 도기니와 수상한 그니, 남한산성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연출부터 각본, 제작까지 모두 담당했다. OST 또한 오징어 게임에 큰 역할을 했다. 음악 감독은 육자와 기생충 등 봉준호 감독의 영화 OST를 맡은 정재일 감독으로, 리코더를 사용해 밝으면서도 기괴한 느낌을

을 주는 OST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사람이 자신의 목적과 456억의 상금이 걸린 사바이벌 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모두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다. 거액의 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는기에 탈락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

딱지치기
딱지치기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한국의 전통 놀이 중 하나이며 오징어 게임에 가장 먼저 등장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의 놀이다.

주로 남자들이 많이 했던 놀이인 딱지치기는 종으로 평행사변형 모양을 접고 다시 그 모서리를 끼워 만든 정사각형 형태의 '딱지'를 땅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그 옆을 쳐서 바닥에 있는 딱지를 뒤집으면 이기는 게임이다.

극 중에서는 이긴 사람에게 10만 원을 쥐어 하지만, 10만 원이 없는 경우에는 빵을 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게임이 마무리되면 병함을 건네주며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유도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술래가 눈을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이에 조금씩 술래 가까이 다가가서 술래를 손바닥으로 치고 도망가는 놀이다.



▶ 프랑스 '오징어 게임' 체험관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오징어 게임의 1단계 게임으로 생존율은 44%에 달한다. 게임 참가자들은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5분 안에 소녀 모습을 한 로봇의 눈에 장착된 센서를 피해 결승선을 통과해야 살아남는 게임은 술래 역할의 로봇에게 움직임이 감지되면 벽면의 저격 소총이 센서가 감지한 대상을 사살한다. 로봇의 눈은 동작 감지에 매우 예민한 센서로 되어 있어 약간의 움직임도 발견할 수 있다.

북미권에서는 자막과 더빙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흡사한 'Green Light/Red Light' 게임으로 현지화 변역됐다. 이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보는 서양 사람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꼭 한국어로 들어야만 몰입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달마 스님이 넘어졌습니까(だるまさんがころんだ)'로 현지화됐다. 특히 일본어 더빙판은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거의 일치하는 음절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설탕 보기
2단계에서는 설탕을 녹인 후 베이킹소다(식소다)를 섞은 후 모양틀을 눌러 만드는 한국의 사랑 '달고나'가 등장했다.

동그라미, 세모, 별, 우산 중에서 각자 원하는 모양이 그려진 문 앞에 서서 자신이 선택한 모양이 찍힌 달고나를 받고 10분 안에 그 달고나의 모양을 정확히 때어

내는 게임으로 진행됐다. 모양을 뽑아내던 중 모양이 부서지거나 제한 시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션 실패하게 되고 진행원이 즉시 사살한다.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죽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점점 두려움과 긴장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제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때문에 압박감은 더욱 심해진다. 2단계의 생존율은 57.75%에 달했다.

외국의 시청자들은 단순한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참가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서 뽑기에 도전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항상 마무리는 실패로 끝난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유리쥬'에서는 달고나 판에서 어떻게 해야 뽑기에 성공할 수 있는지 실제 달고나 사장님들을 초대해 비결을 전하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에는 한국의 드라마 열풍이 시작했다. '갯마을 차차차'와 '마이 네임'까지 넷플릭스의 TV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TOP 10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흥행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한국 작품에 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 넷플릭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조수연 기자
noeyusoho@gmail.com

축제·공연 소식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Healing for You>

• 기간 : 2021. 11. 09. (화)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콘서트 오페라 <청교도>

• 기간 : 2021. 11. 10. (수)
• 장소 : 부산시립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향의 '우리아이 음악회'

• 기간 : 2021. 11. 11. (목)~2021. 11. 12.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2021 전포 커피 축제

• 기간 : 2021. 11. 13. (토)~2021. 11. 14. (일)
• 장소 : NC백화점 앞 무대
• 주최 : 부산진구



유망주 음악회-The Solist

• 기간 : 2021. 11. 14. (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 부산문화회관



2021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 기간 : 2021. 11. 24. (수)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다시부르는 피란수도, 부산

• 기간 : 2021. 11. 25. (목)
• 장소 : 부산시립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오페라연합회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합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교과

옛날과는 달리 현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문화의 자리가 좁혀졌다. 이전에는 교류, 통신, 문화 콘텐츠의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이나 수당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점자도서관, 체합관 등 시설도 생겨났다.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제 체험 촉각 교구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교구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시각 장애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들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립 중앙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를 중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수능에 수록된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체험이 가능해졌다.

교구를 통해 시각장애인 청소년들도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

고 진학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교구의 집감을 느끼고 도드라진 형태를 만지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다. 이렇게 시각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교구가 개발된 것은 처음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줌으로써 좋은 문화가 형성됐다.

지원뿐만 아니라 지난달 15일에는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주제로, 시각장애인 복지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을 통한 고취와 그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즉,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멀게만 느껴졌던 시각장애인들의 인식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

닫게 했다. 대회뿐만 아니라 정기공연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역할이 돋보였다. 2013년부터 시각장애인과 함께 무대공연을 한 '복스빛 무용단'의 세 번째 정기공연으로, 시각장애인 무용수와 서울대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장애인 무용수와 함께 무대를 꾸몄다. 모두가 시각장애인이 무대에서 춤을 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앞서 말한 대회와 같이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시작점이 됐다. 비장애인과는 달리,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이 춤을 연습하고 노래를 듣고 느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 본다. 오로지 무대를 위해 연습을 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많은 반복 연습을 했을 것이라곤 하니 진한 감동이 전해진다.

공연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되고 있다. '립을 튼'과 같은 안내견과 관련된 영화나 시각장애인인 척을 하



▶ 시각장애인 무용수의 나빌레라

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등 다양한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꾸리는 영화들은 많지만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은 드물다. 이전에는 각 지역의 영화관이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영화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공간을 없애는 반면, 시각장애인들이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와 더불어 시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권리가 있고 같이 상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문화생활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직업은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고 비장애인과 같이 경쟁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선호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의료법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은 낮다. 한행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정역이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있는 만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이 생긴다면, 취업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최근에는 은누리상품권보다는 각 은행사의 포인트로 지급됐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도 상품권보다는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더 나아가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들도 많다. 이렇게 사회적 부분도 온라인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앱으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 상품권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차별로 다가올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고려해 결제업의 차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코로나19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스템이 많이 있다. 가게에 들어갈 때에는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의 비중이 늘었고 셀프서비스와 같이 뒷정리까지 해야 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다. 이유는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많다. 하지만 도입된 시스템과는 달리 대책 방법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차별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대책 방법들도 고려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동반자,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문화가 주목받으면서 안내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안내견이 되려면 어릴 적부터 전문 훈련을 받으면서

키워야 한다. 이전에는 안내견이 아닌 일반 강아지로 분류하고 편견을 가진 시선들이 많았는데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것 또한 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정역이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있는 만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이 생긴다면, 취업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합부로 만지거나 말을 걸면 안 된다. 안내견의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 물론 간식을 주는 행동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신의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할 시 안내견에게 가도록 하면 안 된다. 자신의 반려견이 안내견을 향해 짖거나 달려간다고 하면 이 행동 또한 안내견의 주의가 분산된다. 이외에도 안내견 앞에서 무단횡단하지 않기, 앞길을 막는 등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지키지 않아 인권을 누스에도 나오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동물이라서 그랬다는 주장이다. 안내견이라는 옷을 입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동들은 변명이 아니라 실제 가해 행동이다.

안내견을 비판하고 차별하는 행동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행동과 같다. 앞으로 안내견에 대한 문화와 공연을 통해 안내견들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인식의 개선도 발전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문화가 넓어지면서 깨닫게 된 점은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누구나 완벽해졌다는 게 없고 모자란 부분은 많다. 시각장애인들이 우리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자료 출처 : KBS NEWS - 촉각 교과
테이디신론 - 시각장애인 무용수
임상희 수습기자

뜨거운 열기의 부산국제영화제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 속 활력



▶ <살림 봄베이> 스틸컷

▶ 사진출처 - 마리골레르 공식 블로그

지난 10월 6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가 개최됐다. BIFF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대의 비경쟁 영화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모든 영화제가 강제적으로 변화의 과도기에 놓이게 됐고, BIFF도 나름의 철학으로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영화 축제와 비전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번 BIFF는 그 일환으로 몇몇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신설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첫 시작이다.

확장되는 영화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한 '온 스크린' 섹션은 아시아 최초로 새롭게 신설됐다. OTT 플랫폼과 영화제가 서로 가치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윈윈 모델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관람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감독, 배우 등 영화계의 주요 스태프가 영화와 OTT 드라마 현장을 자

유롭게 오가는 최근 한국 영화 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한편, 영화 매체의 확장된 흐름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의도다. 이번에는 <지옥>, <미이 내일>, <포비튼> 총 세 편의 드라마를 상영해 준다. 또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지역발전형 관광 프로그램을 신설해 비경쟁 영화제로서 탈권위, 탈중앙의 정신을 기반으로 정해진 행사장이 아닌 부산 전역, 아시아 전역에서 BIFF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했다.

BIFF는 해마다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해 왔다. 특정 국가나 감독을 조명할 경우도 있었고, 어떤 세대의 영화나 장르를 특징해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에는 아시아 영화를 다룬 두 개의 특별전을 준비했는데, 영화계 전문가들이 설문문을 거쳐 선정한 여성 감독이 만든 최고의 아시아 영화 특별전 '윈더우먼스 무비'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중국 감독들의 영화



▶ 개막작 <행복의 나라로>

▶ 사진출처 - 마리골레르 공식 블로그

를 소개하는 특별전 '중국 영화, 새로운 목소리'가 그것이다.

이번 BIFF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영화가 나와 취향대로 골라 감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윈더우먼스 특별전에는 다양한 생애 주기를 지나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는 갓 스무 살이 된 다섯 명의 시작을 담은 영화로, 개봉 20주년을 기념해 재상영한다. 성장 서사를 다룬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수자쿠>는 한 소녀의 불안과 우울, 이별, 사랑 등의 감정을 그린 영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 감독 하이과 알만수르의 <와즈>는 여자는 자전거에 탈 수 없다는 암묵적 규율에 수긍하는 대신 자전거 값으로 치를 상금을 타러 꾸러미 상 대회를 가는 열 살 소녀 '와즈'의 이야기다. 이 영화의 반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허안화 감독의 <심플 라이프>는

평생 가족을 위해 돌봄 노동을 한 여성 '아타오'와 그녀를 보살피게 된 '모자'의 이야기다.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보살핌의 가치, 고령 사회의 모습 등을 담았다. 나딘 라바키 감독의 <기타노움>은 레바논 사회의 빈곤, 아동 방치, 조혼, 난민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꼬집는 영화로, 자신을 방임한 부모를 고소하는 '자인'의 눈빛이 인상적인 영화다. 또 윈더우먼스 무비 섹션의 '와즈'는 여섯 번째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했다.

'중국 영화, 새로운 목소리' 특별전 선정작들은 최근 중국 영화산업 주류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던 감독들의 대표작이다. 디아오 이난 감독의 <백림영화>

비간 감독의 <가일리 블루스>, 올해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웨이슈준 감독의 <웅안 마을 이야기>를 비롯해 총 일곱 편의 작품을 상영했다. 장이머우, 첸 카이거, 지아 정커 등의 중국 거장 감독을 잇는 새로운 흐름을 살펴볼 기회다.

개막작 <행복의 나라로>는 2020년 칸 국제영화제 오스칼 섹션에 선정됐는데, 코로나19로 영화제가 취소되며 세상에 나오지 못했으나 올해 BIFF에서 상영됐다. <나의 절친 악당들> 이후로 6년 만에 처음 나온 그의 장편 영화는 일종의 복귀작인 셈이다. 또 끊임없이 논쟁적인 작품을 선보인 그의 조금은 변화된 작품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영화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탈목수가 예상치 못한 동행인을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로, 최민식, 박해일, 윤여정 등 믿고 보는 배우의 출연으로 기대를 높였다.

또 주목할 점은 커뮤니티 비프의 확장이다. 부산 남포동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커뮤니티 비프가 올해는 부산 전역으로 뻗어 나갔다. 커뮤니티 비프는 BIFF가 출범하자마자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관객의 선택을 받아 상영을 확정하는 리퀘스트 시네마야말로 BIFF만이 가진 압도적인 차별성이다. 이 바탕 아래 주최자와 관람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체가 돼 함께 즐기는 축제의 본질을 살리고 있다. 커뮤니티 비프는 올해부터 '동네방네 비프'를 신설해 14개의 마을 공동체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지역 맞춤형 영화를 열어 '영화가 마을의 일상이 되는 지역 특화 브랜드'를 만들었다. 영화의 전당-유네스코 영화 장의 도시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들이 만든 마을 영화도 공개되며 참여형 시민 축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출했다.

부산시는 안전한 BIFF 개최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코로나19 관계 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개·폐막식 행사장 전체 좌석을 1,203석 규모로 조정해 운영하고, 출입진과 관객 등 참가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와 접촉을 의무화했다. 또 실내와 극장 및 모든 행사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레드카펫 입장 시 관객 접근을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적용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이번 BIFF 개막식은 코로나 이후 1,000명 이상의 일반 관객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행사가 됐다.

2020 BIFF에서는 영화의 전당 한정으로 작품당 1회씩 상영했으나, 올해는 모든 선점작 극장 상영을 원칙으로 해 예년과 같이 영화의 전당뿐만 아니라 CGV, 롯데시네마, 소향씨어터, 아트시네마 등의 상영관에서 여러 회 상영됐다. 작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야외 부대 행사까지 열려 오랜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축제가 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 영화 상영에만 집중했던 BIFF가 올해는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개막식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로 관객을 맞이하는 등 코로나19를 넘어진 관객의 선택을 받아 상영을 확정하는 리퀘스트 시네마야말로 BIFF만이 가진 압도적인 차별성이다. 이 바탕 아래 주최자와 관람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체가 돼 함께 즐기는 축제의 본질을 살리고 있다. 커뮤니티 비프는 올해부터 '동네방네 비프'를 신설해 14개의 마을 공동체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지역 맞춤형 영화를 열어 '영화가 마을의 일상이 되는 지역 특화 브랜드'를 만들었다. 영화의 전당-유네스코 영화 장의 도시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들이 만든 마을 영화도 공개되며 참여형 시민 축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BIFF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일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희망의 첫걸음이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BIFF가 세계 속의 영화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수습기자

■ 학생생활상담센터 & 솔루션데스크 - 박미정 선생님

힘들 때 찾아오세요 '솔루션데스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솔루션데스크의 모습(국제협력관 1층)

2019년 10월 16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드립니다'는 사명을 가지고 개소한 솔루션 데스크는 2021년 4월 16일 확장 이전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속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솔루션데스크가 어떤 곳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솔루션데스크 교직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19년 10월에 개소 후 2021년 4월 확장 이전하여 현재 국제협력관 1층에 위치한 솔루션데스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정입니다.

Q. 먼저 솔루션데스크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솔루션 신청이 들어오면 각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내 부서들과 협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데스크에서 운영하는 장학업무, 프로그램 진행, 솔루션 멘토단 지원 등 솔루션데스크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아직도 솔루션데스크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솔루션데스크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솔루션데스크는 개인 맞춤형 학생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동서대 학생들이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진로가 고민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등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될 때 솔루션데스크로 오시면 처리 과정이나 방법들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특히 솔루션데스크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의 경우 생활비성 장학이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우나 응원이 필요한 학우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장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장학',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슬기로운 휴학 생활 장학', 학사경고를 받은 후 성적 향상이 된 학우들에게 지원되는 '학사 경고 탈출 장학', 재입학한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한 '웰컴 백 장학'이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학생들이 솔루션데스크에 많이 찾아오나요?

A. 정말 다양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전과를 하고 싶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학사경고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편입생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 A부터 Z까지 폭넓은 고민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신청 또한 전화, 메일, 교수님 추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루트로 오고 있습니다.

Q. 여러 상담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기본적으로 모든 상담은 비밀 보장이 원칙이므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오랜 휴학 후 복학하였는데 학교 적응이 어려워 찾아온 학우가 있었어요. 학교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등 안내를 제공하였고 이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나눈 후 학교 적응을 도와서 솔루션 장학금도 받고 잘 적응하고 현재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학우가 생각이 나네요.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어서 학교생활에 변화가 많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거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솔루션데스크를 소개해 주시면 도움



▶ 솔루션데스크 이용안내 사진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최근 솔루션 멘토단 2기가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루션 멘토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솔루션데스크가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학생 통합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1학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리적인 고민이 있는 학우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생활 상담 센터의 개인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으로 연계되는 편인데요 학생들을 위한 좀 더 편안한 상담을 위한 또래 멘토링을 위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 선생님이나 동아리 동아리 혹은 관심 있는 타 학부 선배나 동료들과 고민을 나누거나 정보 얻는 등 솔루션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1:1멘토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멘토링뿐만 아니라 솔루션데스크의 홍보 서포터즈 역할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멘토링을 위한 상담교육도 받으면서 멘토 각각의 역할을 키우게 되고요. 개인화하면 솔루션 멘토로서 동서 학우들과 함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솔루션데스크 문 앞에서 들어오길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솔루션데스크는 대학생활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런 고민을 상담받아도 될까?",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상담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걸 여기 물어도 되나?" 등 물음표가 생기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고민은 각각의 무게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똑똑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이민재 수습기자

■ 우리 대학 외국어교육원 - 큐칼리지 1기생 인터뷰

부캐 양성 도전 스쿨 Q College

Q College 대표 조효민 인터뷰



▶ 조효민 학생과의 만남

2021년 4월 5일, 동서대학교는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 대학 안 'Q College'를 개설하여 융합인재 양성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Q College는 21년 6월 25일 신입생 모집을 마치고 2학기 시작인 21년 9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큐칼리지(Q College)는 스스로 도전과제를 정하고(Question), 그 답을 찾아 나가면서(Quest), 빠르게 성장하는(Quantum Jump) 인재를 키우기 위한 부캐 양성 도전 스쿨을 지향하는 대학 인의 대학이다. 동서대학교 학생이라면 본 전공을 통해 자신의 '메인 캐리어(본캐)'를 만들어가면서, 큐칼리지(Q College)에 입학하여 1년 동안 'X-Class', '기입과정'과 '자기혁신', '퀀텀 점프 도전 학기제'를 통해 내내에 감추어진 기와 열정을 싣려 도전하는 '서브 캐리어(부캐)'를 만들 수 있다.

Q. 부캐 양성 도전 스쿨 Q College 1기에 도전하는 조효민 학생을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만나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조효민입니다. 현재 Q College에서 1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Q. Q College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Q College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Question),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Quest), 빠르게 성장하는(Quantum Jump) 부캐 양성 도전 스쿨입니다. 동서대학교의 Q College에 입학하면 1년 동안 본 전공을 통해 자신의 메인 캐리어(본

캐)를, Q College를 통해 '서브 캐리어(부캐)'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컨셉 점프 도전 학기를 통해 부산, 아시아, 미국까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신만의 도전을 하고, 그 결과물로 전공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습니다.

Q. 자신의 부캐를 만드는 Q College에서 조효민씨의 부캐는 무엇인가요?

A. Q College 도전을 통해 만들고 싶은 부캐는 RA 전문가는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의료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의류기기 RA, 다른 말로 의류기기 규제과학입니다. RA는 설계, 개발부터 사후관리 그리고 기기의 전 주기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관해 연구하는 의류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분야입니다.

Q College를 통해 전공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각종 의류기기와 최신 의류 기술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Q. Q College 대표에 지원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A. 열정만 있다면 자신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Q College에 매력을 느꼈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Q College를 홍보하며 참여하는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Q College를 만들어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이라도 주고 싶었기에 1기 대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Q College 활동하면서 어려움이거나 힘든 일은 어떤 건가요?

A. 가끔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자유로움 속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無 강의, 無 교수, 無 강의실, 無 시험을 내세우고 있는 Q College인 만큼 기존에 행해오던



▶ 큐칼리지 1기 대표 조효민 학생

일반적인 지식 전달 방식의 수업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만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학기가 진행됩니다. 많은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도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선택을 뒤에 따라오는 책임 또한 감내해야 합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힘겨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반대로 Q College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도전 속에서 어려움도 느끼는 동시에 생각했던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마음 뿌듯하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또한 도전 과정들 속에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매우 있는데, 이때 느끼는 즐거움도 큰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Q College 2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자신의 전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동서대학교의 Q College에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와 다른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Q College에 입학하게 된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 뒤에는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Q College에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이름다운 도전을 하게 될 모두를 응원합니다.

주태연 수습기자

성경 속 인물 - 사사 임다

이스라엘 8대 사사 임다[Jephthah]



▶ 임다의 귀환

▶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사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등장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사 2: 16-18). '사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쇼페트'나 헬라어 '크리테스'는 원래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으로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이 정치나 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사 2: 16). 그중에서도 사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열두 명인데, 6명의 대사로는 웃니엘(사 3: 7-11), 예후(사 3: 12-30), 드보라(사 4-5장), 기드온(사 6: 1-8: 32), 임다(사 10: 6-12: 7), 삼손(사 13-16장)이 있고, 6명의 소사사로는 삼갈(사 3: 31 이하), 돌라(사 10: 1-2), 아일(사 10: 3-5), 입산(사 12: 8-10), 엘론(사 12: 11-12), 압돈(사 12: 13-15) 등이 있다. 바락(사 4: 6-22)은 여사사 드보라와 같이 활동했고, 사무엘은 사사기에 언급되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로 간주되며(삼상 7: 15),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불린다(삼상 8: 1-2)

"그는 언더"는 뜻, 이스라엘의 제8대 사사인 임다(Jephthah)는 길르앗 지방에서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큰 용사였으며 그는 서자(庶子)라는 이유로 사울왕에게 의해 쫓겨나 돌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임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사 11: 2-3)

임다는 그렇게 건달과 혹은 도적 때의 두렵으로 살던 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원로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았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임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임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찾은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임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남겨주신다면, 과연 당신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임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를 수락해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한 임다의 군대가 국경에서 암몬군대와 맞서게 된다.

출전하기에 앞서 임다는 전쟁의 주재이신(사 24: 26) 아웨 하나님의 인준을 받기 위해 길르앗의 중앙 성소 미스 베를 방문, 예배드라다(사 11: 11, 29). 다른 사사들이 경험한 것처럼(사 3: 10: 6: 34: 11: 29: 13: 25) 기병의 아들 임다에게도 야웨의 영이 임하였고, 이 감격적 체험 후에 임다는 아웨께 서원한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남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네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

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반제물로 그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임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임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만년까지 스무 성읍을 쳐 부수고, 아벨 그라 밑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임다가 미스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 충격적 여파로 이후 이스라엘 모든 처녀가 그녀의 비극적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4일간 애곡하는 풍습(사 11: 36-40)이 기원했으며, 임다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단명한(6년/12: 7) 사사로서, 기록에 의하면, 팔과 다리가 단절되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한다. 임다의 딸을 반제로 하느님께 드리게 되는 행위는 임다를 위해 하나님과 야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준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임다, 다음 블로그-Joyful 주태연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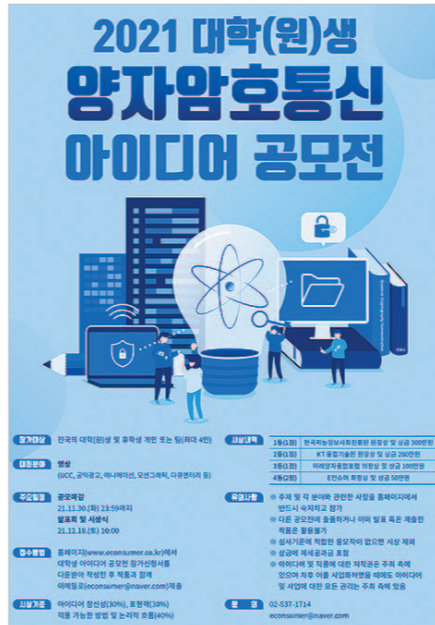
■ 2021 무역 빅데이터 활용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1.11.09. (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무역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아이디어 기획/자유 주제



■ 뷰티 도시 서울 브랜드 네이밍·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07. (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네이밍/영상



■ The 22nd POSCO IMP Startup Design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11. (목)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2021년 대학(원)생 양자암호통신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30. (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동영상



■ 2021년 세종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09. (화)
 • 응모대상 : 전국 개인 및 사업자 누구나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웹툰, 건축



■ 2021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 스토리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14. (일)
 • 응모대상 :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 공모분야 : 수기/영상



■ 제6회 LG화학 대학생 광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12. (금)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웹/모바일/IT



■ 20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07. (일)
 • 응모대상 : 고등학생 이상 참가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논문/리포트, 문학/글/시나리오



■ 2021 ETRI 데이터 나눔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1.11.23. (화)
 • 응모대상 :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및 공유에 관심 있는 사용자
 • 공모분야 : 과학/공학



■ 센터필드 미디어월 영상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2.05. (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1.11.22. (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웹/모바일/IT



■ 강원DMZ 테마관광벤처 스타트업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1.17. (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취업/창업

동서백일장의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솜비

광고홍보·김보람

바람 따라 날아간 단어들
 파도 한 겹 아래
 모은과 자음으로
 솜비소리 내며 흩어지고

나의 언어는 다시
 고목나무 뿌리로 태어난다

혀를 굴러
 목을 올려
 소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은 몸의 세포를 간직하는 일

그리하여 잇몸에 닿는 혀의 관촉은
 언제라도 보드란다

오늘은 너를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들려 보내야지

구름 다발 흘러가고
 다시 밤이 찾아오면
 오늘의 바람에 마음을 싣는다

늦은 오후

작업치료·정난이

장미 넝쿨이 담장 너머 얽은 향기를 피우울렸다
 붉은 꽃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더운 낮잠을 뒤척였다

아이들이 종종거리며 골목길로 날아와
 재잘거리는 소리가 눈꺼풀에
 오래 앉았다 갔다

햇살이 자는 개를 친절히 빗어주었다
 고운 햇살 부스러기가 훑날렸다

늘어진 개의 꼬리가 바들바들처럼 흔들리고
 녹색 고무호스에 맺힌 물방울들이
 시멘트 바닥을 둥그렇게 물들였다

팍지 않은 질대문이 녹슨 쇠를 길게 흘렸다
 골목길에 발자국 하나가 멈춰있다 돌아났다

달의 노래

방송영상·김은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별을 가져다
 기껏 노래를 만들었다

한 몸 부서지며
 공중에서 부서져도
 별 부스러기는 위대하고

보름날 밤
 머리부터 부서지는
 나는 흰옷이 가엸구나

어린 생명만이 깨어있는 밤
 앞뜰과 뒷뜰산에
 애라는 노래 이어질 때면

광활한 어둠 속
 형태 없이 전해질 말이
 한 행성의 밤을 잠식하네

달님은 영항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포르륵-
 포르
 륵
 보내는 이 한 밤